

제 1 교시

국어 영역(B형)

1

[1 ~ 3] 다음은 수업 중 학생들이 실시한 반대신문식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오늘은 매점 이용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우리 학교는 올해 3월부터 매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본관 밖에 있는 매점까지 다녀오기에 쉬는 시간 10분은 너무 짧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수업에 늦어 다른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업에 늦어 벌점을 받은 학생은 133명이나 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매점에 급히 달려가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지난주에 매점으로 뛰어가던 1학년 학생끼리 부딪쳐 다친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쉬는 시간을 늘리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쉬는 시간을 늘리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또 매점에서 본관으로 들어오는 현관이 쉬는 시간마다 더러워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점심시간에는 현관 청소 당번 제도가 있으므로 매점 이용을 점심시간으로 제한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반대 2: 반대 측 확인 질문 하겠습니다. 수업에 늦은 학생들이 모두 매점에 가느라 늦었습니까?

찬성 1: 음, 그건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자: 다음 반대 측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 배가 고파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경험에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1교시 전후와 체육시간 직후에 매점을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만약 점심시간에만 매점을 이용하면 학생들에게 매점은 유명무실한 곳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매점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찬성 측의 주장은 매점이 설치된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학생들이 매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학생 개인의 권리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점이 멀어 문제가 생긴다면 쉬는 시간을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매점 이용 시간을 무조건 제한하기보다 매점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다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2: 찬성 측 확인 질문 하겠습니다. 개인의 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도 됩니까?

반대 1: 안 됩니다.

찬성 2: 쉬는 시간에 매점을 이용해서 현관이 더러워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닐까요?

반대 1: 음, 그것은 맞지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죠.

(중략)

사회자: 양측의 입론과 확인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반대 측부터 반박을 하겠습니다.

반대 1: 속의 시간을 요청합니다.

사회자: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양측에 3분 동안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 '찬성 1'과 '반대 1'의 입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성 1'은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매점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 ② '찬성 1'은 현관의 청결 유지가 필요함을 근거로 매점 이용 시간을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③ '찬성 1'은 매점 이용 방식의 변화로 매점 이용상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④ '반대 1'은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찬성 측의 주장은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 ⑤ '반대 1'은 매점이 설치된 취지를 근거로 찬성 측의 주장이 부당함을 제시하고 있다.

2. 양측 모두가 동의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의 생활환경에서 청결이 가장 중요하다.
- ②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 ③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 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3. <보기>를 바탕으로 속의 시간에 상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반박은 입론과 확인 질문을 통해 주장한 내용 중 자신의 편에 유리한 것들을 선별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토론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때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 이에 대해 양측에서 논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금하고 있다.

①	찬성	수업에 늦는 원인을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루지 않는 것이 좋겠어.
②	찬성	쉬는 시간을 늘린다면 우리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 있어. 쉬는 시간을 늘리는 일이 어렵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해.
③	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가 설득력이 있으니까 매점 이용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야 해.
④	반대	매점은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므로 현재 파는 품목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팔아야 한다고 제안해야 해.
⑤	반대	우리의 입장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설득해야 해.

[4~5] 다음은 라디오 상담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상담자: 다음으로 상담하실 분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와 다툰 일로 상담을 하려고요.

상담자: ㉠ 고등학생이시죠? 친구 관계로 고민이 많으신가 보군요.

민수: 네, 아파서 시험을 잘 못 본 은선이라는 친구가 우울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니까 시험을 못 본 것은 당연한데 왜 우울해 하나며, 나 같으면 우울해 할 시간에 공부를 더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친구가 심하게 화를 내더군요. 앞으로 잘되라는 뜻으로 한 말인데, 제가 대체 무엇을 잘못된 것일까요? ㉡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상담자: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닌데, 친구가 화를 내서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종종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말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 ㉢ 제 말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상담자: 그렇지요. ㉣ 따라서 민수님의 충고가 친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민수: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담자: 우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겠지요. [A]

민수: 그렇군요. 제가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친구에게 우선 사과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할머니 댁에 와 있어서 친구를 만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자: ㉤ 우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사과를 하면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민수: 네, 상담 감사합니다.

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라디오 상담이라는 공적인 말하기 상황을 고려하여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② ㉡: 대인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대화 상대방이 한 말을 반복하여 상대가 한 말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 ④ ㉣: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대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조언하고 있다.
- ⑤ ㉤: 먼 대 먼 상황이 아니라도 상황에 맞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5. [A]를 참고할 때, '민수'가 '은선'에게 했어야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선아, 아프면 누구나 시험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없어.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
- ② 은선아, 아파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 속상하겠다. 몸이 회복되면 다음 시험은 분명히 잘 볼 수 있을 거야.
- ③ 은선아, 요즘 너를 보면 체력이 많이 달리는 것 같은데 점심 시간마다 운동을 하면 어때? 나도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
- ④ 은선아, 속상하지? 그래도 너는 늘 나보다 시험을 잘 보잖아. 아마 이번에도 나보다 성적이 더 좋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서라도 우울해 하지 않았으면 해.
- ⑤ 은선아, 아파서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해 많이 우울하겠다. 너는 우리 반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아이인데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니? 네 마음 충분히 알 것 같아.

[6~7] 다음은 '전기 에너지 부족 문제'에 관한 논설문을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개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I. 서론

1. 우리나라 전기 에너지 부족 현황
2. 화력 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

II. 본론

1. 문제의 원인 분석
 - 가. 전기 에너지 생산 시설의 부족과 노후화
 - 나. 공공 기관의 과도한 전기 에너지 사용 ㉡
2. 문제의 해결 방안
 - 가. 전기 에너지 생산 시설의 확충 ㉢
 - 나. 기업의 과도한 전기 에너지 사용 규제
 - 다. 가정의 무분별한 전기 에너지 사용 ㉣
 - 라. 홍보를 통한 가정의 절전 실천 유도

III. 결론: 전기 에너지 부족 문제의 심각성 강조 ㉤

7. <보기>를 활용하여 개요의 'II-2-라'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전문가 의견>

전기 에너지 절약은 실천을 강요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은 아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전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한 지식들이 바탕이 되어야 절전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

에너지 절약형 제품 구매 노력(2011년, 20대 이상)

(단위: %)

	계	매우 노력한다	약간 노력한다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를 모르는 경우	100.0	6.4	19.0	42.2	32.4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를 아는 경우	100.0	41.6	47.8	9.6	1.1

- ① 현재 전력 수급 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에 대한 홍보를 통해 기업과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형 제품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
- ② 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사용 비율이 낮은 이유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 ③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전기 에너지 낭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④ 우리나라도 대규모 정전 사태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따라서 예비 전력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 ⑤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기 절약 방법을 홍보해야 한다. 특히, 전기 에너지 절약형 제품 사용에 대한 홍보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6. ㉠~㉤을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② ㉡은 'II-2-나'를 고려하여 '기업의 과도한 전기 에너지 사용'으로 수정한다.
- ③ ㉢은 'II-1-가'를 고려하여 '전기 에너지 생산 시설 확충과 노후 시설 개선'으로 보완한다.
- ④ ㉣은 상위 항목의 내용을 고려하여 'II-1'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 ⑤ ㉤은 '본론'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대체 에너지 개발의 촉구'로 수정한다.

8. 다음은 명사 초청 특강에 대한 기사문을 쓰기 위한 기획 회의 결과와 기사문의 초고이다. 기획 회의 결과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기획 회의 결과

- ㉠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인상적인 ‘표제’를 작성하자.
- ㉡ 특강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포함되도록 ‘전문’을 구성하자.
- ㉢ 독자가 특강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강사의 말을 ‘본문’에 인용하자.
- ㉣ 특강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본문’에 질의응답 내용을 삽입하자.
- ㉤ 특강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본문’ 끝부분에 만족도 수치와 다음 특강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자.



표제

향수 없이 향기를 내뿜는 옷

부제

‘이그 노벨상’ 특강

전문

27일(금) 교내 강당에서 ‘이그 노벨상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 교수(△△대학교 물리학과)의 ‘창조적 파괴’에 대한 특강이 열렸다.

본문

이날 오후 4시에 시작된 특강에서 ○○○ 교수는, 저절로 향기가 나는 신사복을 만들어 이그 노벨상을 수상한 사례로 특강을 시작했다. 이어서 다양한 수상 사례를 통해 어떻게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창조적 파괴’를 이루어 낼 수 있는지 설명하고, “삶의 즐거움, 그것은 상상력입니다. 누구나 이 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격려의 말로 특강을 끝맺었다. 특강을 통해 소개된 흥미로운 성과에 학생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다. 강연을 들은 2학년 □□□ 군은 “이번 강연을 통해 창조적 발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이번 특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평균 93점으로 1학기에 있었던 특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오는 10월에는 ‘영화 속 과학의 세계’를 주제로 특강이 열릴 예정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시간 관리’에 대해 써 보자.

[과제의 초고]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늦는 법이 없다. 시간의 주인으로 살기 때문이다. 반면,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잡다한 일로 늘 바쁘지만 놓치는 것이 많다. 시간에 묶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 하지만 이 말이 일본일초의 여유도 없이 뻘뻘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다. 주어진 순간순간을 밀도 있게 사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부수적인 것들을 정리하면서 삶의 곳곳에 비는 시간을 ㉡ 만들어져야 한다. 자동차와 빌딩으로 가득한 도시에 공원이 필요하듯 우리의 시간에도 여백이 필요한 것이다.

조금은 비워 두고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백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하다. ㉢ 인생의 기쁨은 자존감에 바탕을 둔 배려심에서 나온다. 목표를 향해 가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에 ㉣ 맞닥뜨릴 수 있다. 그러한 뜻밖의 상황에서 시간의 여백이 없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 그러므로 시간의 여백을 만드는 것은 현명한 삶을 위한 최고의 시간 관리라 할 수 있다.

9. ‘과제의 초고’에서 글쓴이가 활용한 글쓰기 방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대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글을 시작한다.
- ㄴ.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개인적인 경험을 제시하여 글의 전달 효과를 높인다.
- ㄷ.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ㄹ. 객관적 사실을 나열한 후 간략하게 의견을 덧붙여 글을 마무리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에 대한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맥을 고려하여 뒷문장과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겠어.
- ②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만들어져’로 고치는 것이 좋겠어.
- ③ ㉢: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 ④ ㉣: 맞춤법을 고려하여 ‘맞닥뜨릴’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어.
- ⑤ ㉤: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또한’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

11. <보기>를 고려하여 '동화'와 관련된 표준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표준 발음법 - 음의 동화]

- 받침 'ㄷ, ㅌ(ㅈ)'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받침 'ㄱ(ㄲ, ㅋ, ㆁ, ㄷ, ㄴ, ㄹ)'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 받침 'ㄹ,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ㄴ]로 발음한다. 단, 일부 한자어의 경우 예외가 있다.
- 위에서 지정한 이외의 자음 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① '미닫이'는 'ㄷ'이 모음 'ㅣ'에 동화되므로 [미다지]가 표준 발음이다.
- ② '닫는'은 'ㄷ'이 'ㄴ'에 동화되므로 [단는]이 표준 발음이다.
- ③ '침략'은 'ㄹ'이 'ㄹ'에 동화되므로 [침낙]이 표준 발음이다.
- ④ '칼날'은 'ㄴ'이 'ㄹ'에 동화되므로 [칼랄]이 표준 발음이다.
- ⑤ '신문'은 'ㄴ'이 'ㄹ'에 동화되므로 [심문]이 표준 발음이다.

12. <보기>의 (가)~(다)를 고친 이유에 따라 짝지은 결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가) 나는 그에게 곧 가겠다고 말했다.
→ 나는 그에게 곧 가겠다고 말했다.
- (나) 실내에서 답답할 때에는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해야 한다.
→ 실내에서 답답할 때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 (다) 그는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 그는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필요한 문장 성분 누락	의미 중복	조사의 잘못된 사용
①	(다)	(나)	(가)
②	(다)	(가)	(나)
③	(나)	(가)	(다)
④	(나)	(다)	(가)
⑤	(가)	(나)	(다)

13.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자료	○ 차에 실은(○) 것이 뭐니? ○ 시들은(×)/시든(○) 꽃 한 송이가 있다. * ○: 어문 규정에 맞음. ×: 어문 규정에 어긋남.
----	--

의문	○ 어문 규정에 따를 때, '신다'처럼 어간 끝이 'ㄷ'인 용언과 '시들다'처럼 어간 끝이 'ㄹ'인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	---

탐구	㉠ '실은', '시든'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분석해 본다. ○ 실은 → 신-(어간) + -은(어미) ○ 시든 → 시들-(어간) + -ㄴ(어미)			
	㉡ 유사한 사례를 찾아 분석해 본다.			
	예문	기본형	활용형	형태소 분석
	이것이 바로 내가 들은(○) 소리다.	듣다	들은	듣-+-은
	정성을 쏟은(○)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	쏟다	쏟은	쏟-+-은
	예문	기본형	활용형	형태소 분석
	그가 내밀은(×)/내민(○) 손을 잡지 못했다.	내밀다	내민	내밀-+-ㄴ
	부풀은(×)/부퐁(○) 꿈을 안고 왔다.	부풀다	부퐁	부풀-+-ㄴ

결과	○ 어간 끝이 'ㄷ'인 용언은,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하면 'ㄷ'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_____. ○ 어간 끝이 'ㄹ'인 용언은,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면 ㉡_____.
----	--

㉠

- ① 'ㄷ'이 'ㄹ'로 교체됨
- ② 'ㄷ'이 'ㄹ'로 교체됨
- ③ 어미의 형태가 바뀜
- ④ 'ㄷ'이 탈락함
- ⑤ 어간의 형태가 바뀜

㉡

- '-으-'가 삽입됨
- 'ㄹ'이 탈락함
- 어미의 형태가 바뀜
- 'ㄹ'이 탈락함
- 어미의 형태가 바뀜

14. <보기>는 단어의 의미 관계에 관한 수업 자료의 일부이다.
<보기>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유의 관계에 있는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의 쓰임 비교
(두 단어가 결합 가능하면 ○, 그렇지 않으면 ×)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
돼지를	○	○	○
감나무를	○	○	×
인내심을	○	○	×
수업을	○	×	×
첨단산업을	×	○	×

- ① ㉠의 경우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는 모두 ‘사육하다’를 대신해 쓸 수 있다.
 ② ㉡의 경우 ‘기르다’와 ‘키우다’는 ‘재배하다’를 대신해 쓸 수 있다.
 ③ ㉢와 ㉣를 보면 ‘키우다’는 ‘기르다’, ‘먹이다’와 달리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 말과 결합하여 쓸 수 있다.
 ④ ㉤의 경우 ‘기르다’는 ‘깎다’와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를 보면 ‘기르다’는 ‘먹이다’에 비해 ‘키우다’와 더 많은 상황에서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동작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진행상과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완료상이 있다.

어머니: 방 정리를 ㉠ 하고 있구나.

아들: 네. 필요 없는 물건은 다 ㉡ 내놓았어요.

어머니: 잘 했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 산 책은 어디 있니?

아들: 아, 그 책은 이미 다 읽어서 동생에게 ㉣ 줘 버렸어요.

어머니: 그래 잘 했다. 아참, 오늘 네 친구가 오기로 했지.

아들: 네. 조금 있다 저하고 같이 ㉤ 공부할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어머니: 그래. 깨끗한 방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면 되겠구나.

- ① ㉠: ‘-고 있구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② ㉡: ‘-았-’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③ ㉢: ‘-ㄴ-’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④ ㉣: ‘-어 버렸어요’는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⑤ ㉤: ‘-ㄹ-’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16. <보기>의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乃_내終_종중_ㄱ 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 쁘느니라 ㅇ_을 입_입술_술 소리 아래 ㉡ 니셔쓰면 입_입시_시울_울가_가비_비야_야보_보소리 ㄷ_외느니라 ㉢ 첫소리를 ㉣ 어울워 뿔_뿔디면 ㉤ 글바쓰라 乃_내終_종중_ㄱ 소리도 혼_혼가지라

- 『훈민정음』 언해, 세조 5년(1459) -

[현대어 풀이]

나중 소리(중성)는 다시 첫소리(초성)를 쓴다. ㅇ을 입술 소리 아래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 첫소리를 아울러 쓰려면 나란히 써야 하니 나중 소리도 마찬가지로.

- ① ㉠: 첫음절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이 함께 나타난다.
 ② ㉡: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 ‘·’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다.
 ⑤ ㉤: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자음이 나타난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약용 유학 사상의 핵심은 ㉠ 주체의 자유의지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측은지심(惻隱之心)처럼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 도덕 감정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주체의 자율적 의지나 결단을 통해서만 도덕 감정도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나) 선천적인 도덕 감정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정약용은 주체의 논의를 수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선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는 주회로부터 벗어나 있다.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인간에게는 항상 측은지심이라는 동정심이 생기는데, 주회는 이 측은지심이 인간 본성의 실현이라고 강조한다. ㉢ 따라서 그에게는 측은지심이 마지막 결과이고 인간 본성이 원인인 되는 셈이다. ㉣ 이와 달리 정약용은 측은지심을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윤리적 행위의 처음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주회로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 이 지점이다.

(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성, 권형, 행사가 그것이다. 우선 본성은 인간만이 가진 도덕 감정으로 천명지성(天命之性), 즉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윤리적 경향을 말한다. 권형은 마치 소용돌이치는 물과 같이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갈등상태에서, 주체적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말한다. 행사는 주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자신의 선택을 행하는 것이다. 즉 선을 좋아하는 경향에 따른 실천을 말한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의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고 욕망에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본성이 아무리 선을 좋아하더라도, 실제로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라) ㉥ 가령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구하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죽는다면 선과 악이 무슨 의미가 있는냐고 하면서, 아이를 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약용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도덕 감정으로서의 본성이 그대로 기능하는 '도심(道心)'이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마음을 자신의 육체적 안위를 우선시하는 '인심(人心)'이라 부른다. 이와 같은 도심과 인심 중에서 주체는 확고하게 도심을 따라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마) 정약용은 측은지심과 같은 도덕 감정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다만 그 감정은 윤리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그 도덕 감정이 실천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학 전통에서 정약용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주체의 실천과 관련된 자유의지를 강조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이를 통해 주회가 강조한 내면적 수양을 넘어, 유학을 실천적 책임의 윤리학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17.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정약용 유학 사상의 핵심 내용
- ② (나): 정약용 유학 사상의 발전 과정
- ③ (다): 정약용이 주장하는 마음의 세 가지 차원
- ④ (라): 주체가 따라야 할 마음에 대한 정약용의 입장
- ⑤ (마): 유학의 전통에서 정약용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

18. ㉠에 대해, 주회와 차별되는 정약용의 견해로 옳은 것은?

- 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 ② 주체가 자유의지를 갖게 만든다.
- ③ 주체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
- ④ 선과 악 사이에서 항상 선을 택하게 한다.
- ⑤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다.

19.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기>의 상황에 대해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화제로 건물 전체가 붕괴될 상황에서 대피하던 '갑', '을'은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부상당한 '병'을 발견한다. 두 사람은 '병'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잠시 후 건물 붕괴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자 갈등에 빠진다. '갑'은 결국 생존자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피하고, '을'만이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남는다.

- ① '갑'과 '을'이 대피하던 중에 부상당한 '병'을 발견한 것은 도덕 감정에 따른 '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갑'과 '을'이 부상당한 '병'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은 본성적으로 선을 좋아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 ③ '갑'과 '을'이 사이렌을 듣고 난 후, 갈등 속에서 결단에 이르는 과정은 '권형'의 차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을'이 자기 생명을 우선시하게 되는 육체의 제약을 극복하고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남은 것은 '도심'에 따른 선한 행위이다.
- ⑤ '갑'이 자신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피한 것은 '인심'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다.

20. 문맥과 독서 표지의 성격을 고려할 때, ㉠~㉣를 활용한 독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문맥상 이 글의 핵심어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이 글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에 주목하면서 읽어야겠어.
- ② ㉡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 이유, 근거가 됨을 보여주는 표지이므로, ㉡의 앞뒤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판단해 보아야겠어.
- ③ ㉢는 서로 상반된 내용을 연결하는 표지이므로, ㉢의 앞뒤의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어.
- ④ ㉣는 앞에 나온 내용을 대신하는 지시어이므로, ㉣가 앞의 내용 중에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찾아보아야겠어.
- ⑤ ㉤는 뒤에 가정된 상황을 제시한다는 표지이므로, ㉤의 뒤에 나오는 내용 중 가정된 상황과 실제 사실을 잘 구분해서 읽어야겠어.

[21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동체의 안전 및 질서 유지와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 작용을 ‘경찰작용’이라 한다. 경찰작용이 발동되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경찰작용 발동의 가장 대표적인 요건으로 ‘위험’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위험이란 예측되는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경찰작용의 발동 요건으로서의 위험은 ‘손해’와 ‘손해 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을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한다.

그렇다면 ‘손해’와 ‘손해 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이란 무엇인가? ‘손해’란 개인 및 공동의 이익이 외부적 영향에 의해 객관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손해는 단순한 불이익이나 부담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단순한 불이익이나 부담이 정상인이 참을 수 있는 범위의 것이라면, 경찰작용이 발동되기 위한 요건인 손해는 정상인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손해 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이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고도의 가능성을 말한다. 만일 누군가가 묶지 않은 개를 데리고 공원을 활보한다면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작용이 발동될 수 있다. 이러한 손해 발생의 개연성에 관한 예측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경찰작용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그런 이유로 경찰작용의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경찰작용 행사를 제한하는 일반적인 원칙에는 적법절차의 원칙, 비례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우선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모든 경찰작용의 행사는 법률을 근거로 하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면허를 주는 운전면허와 같은 각종 허가 제도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비례의 원칙이란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公益)과 그로 인해 훼손되는 사익(私益)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에만 경찰작용이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자의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때 얻는 공익이 면허를 취소하지 않을 때의 운전자 사익보다 크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경찰작용이 법에서 정해진 위험 방지 작용의 테두리를 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만일 영업허가 취소권을 가진 공무원이 친분 관계에 있는 영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와 경쟁하는 다른 영업자의 영업을 취소한다면 이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

2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손해를 관련 개념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 ② 경찰작용 행사의 제한 원칙을 나열하고 있다.
- ③ 경찰작용에 관한 상반된 관점을 대조하고 있다.
- ④ 경찰작용의 제한 원칙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⑤ 위험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작용은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예측해야 한다.
- ② 경찰작용의 근거가 되는 손해에 대한 판단은 정상인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③ 손해란 외부의 영향으로 공동의 이익이 감소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④ 경찰작용은 단순한 불이익이나 부담이 있어도 발동해야 한다.
- ⑤ 경찰작용은 공익이 훼손되는 특정한 범위에만 한정된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에 대해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갑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위치한 유흥업소의 영업을 위해 해당 교육장에게 ‘학교 주변의 유흥업소 영업 행위 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교육장은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인근 학교장에게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받고 심의를 거쳤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교육장은 갑의 유흥업소가 학습 환경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갑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 ① 교육장이 갑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갑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다.
- ② 교육장이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갑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 ③ 교육장이 인근 학교장의 의견을 받고 심의 과정을 거친 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다.
- ④ 교육장이 갑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유흥업소가 학습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 ⑤ 교육장이 갑의 사익보다 유흥업소 영업으로 인한 학습 환경 저해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비례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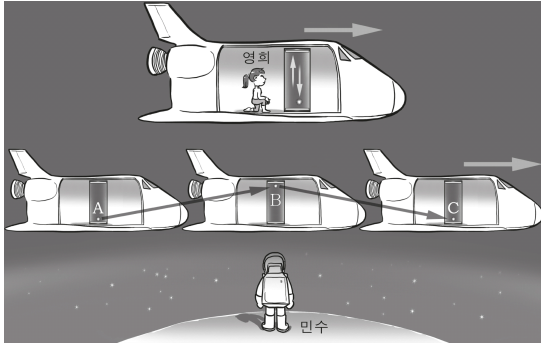
[24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물리학에서 시간의 특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창안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다. 그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사슬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고 가정했다. 여기서 ‘특수’라는 말은 ‘특별하다’는 뜻보다는 매우 한정된 경우, 즉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이론에서는 ‘빛의 속도는 우주 어디서나 동일한 상수 c 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설정한다. 만일 당신이 자동차를 타고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리다가 차의 전조등을 켜다면, 그 빛의 속도는 시속 100킬로미터 + c 가 아니라 여전히 c 라는 것이다. 즉, 빛의 속도는 광원이나 관측자의 운동 상태와 무관한 범용적 상수이다.

빛의 속도의 불변성으로부터 얻어지는 가장 흥미로운 결과

는 시간의 흐름이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동하는 우주선 내부에서 영희가 빛 시계를 관찰하고, 민수는 정지해 있는 행성에서 이 우주선의 빛 시계를 관찰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여기서 빛 시계란 거울을 사이에 두고 빛이 왕복하도록 만든 가상의 시계를 말한다. 만일 우주선 내부에 있는 영희가 보는 빛 시계에서 빛이 한 번 왕복을 했다고 할 때, 행성에 있는 민수의 눈에는 그 빛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일까?



빛 시계에서 빛이 한 번 상하로 왕복할 때 민수의 눈에는 그 빛이 우주선과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관찰될 것이다. 이때 빛은 A → B → C의 경로로 움직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영희가 관찰한 것보다 더 긴 거리를 이동한 셈이 된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전제 조건에 따르면 빛의 속도는 일정하므로 민수는 우주선의 빛 시계가 한 번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영희보다 더 길게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정지한 관찰자가 운동하는 관찰자를 보면 상대편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것을 시간의 팽창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간 팽창 효과는 물체의 속도가 광속에 건줄 만큼 빨라야 눈에 띄게 나타난다.

24.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특수 상대성 이론은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②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는 우주 어디서나 동일하다.
- ③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의 상호 연관성을 전제한다.
- ④ 시간의 팽창 현상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 ⑤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시간의 흐름은 상대적이다.

25. 밑글로 보아,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971년 물리학자 조지프 하펠과 리처드 키팅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다음과 같은 실험으로 증명하였다. 우선 초정밀 원자시계 8개를 준비하여 4개는 점보제트기에 실어 지구를 떠다니게 하고, 나머지 4개는 이것과 비교하기 위해 관측소에 남겨 놓았다. 이들 동안의 여행을 마친 점보제트기가 착륙한 후 이를 기다리던 과학자들은 탄성을 질렀다. 왜냐하면 ㉠

- ① 비행기에 실은 원자시계들이 관측소의 원자시계와 시간이 같았기 때문이다.
- ② 비행기에 실은 원자시계들이 출발할 때와 달리 모두 멈춰 있었기 때문이다.
- ③ 비행기에 실은 원자시계 4개가 모두 서로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 ④ 비행기에 실은 원자시계들이 관측소의 원자시계보다 빨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 ⑤ 비행기에 실은 원자시계들이 관측소의 원자시계보다 느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26.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강조하고 있는 독서 태도를 고려할 때, <보기>의 '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오늘날에는 그 책은 높이면서도 그 마음은 놓치고, 그 글은 외우면서도 그 뜻은 뒷전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생각하면 망령된 것이라고 하고, 의심하면 참람한 것이라고 하며, 뜻을 밝히면 군더더기 말이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사소한 것까지 억지로 금령을 설치하여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구별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어찌 고인이 후인들에게 바라는 바이겠는가? 사람이 백 리 길을 가는 것에 건주어 보자. 어떤 사람은 수레를 갖추고 마부가 길을 인도하게 하여 하루 만에 바로 도착하였고, 다른 사람은 여러 갈래의 지름길을 탐색하여 어렵사리 도달하였다. 나중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똑같은 길을 가게 하면, 지름길을 탐색하면서 갔던 사람은 분명하게 길을 인식할 수 있어서, 마부가 길을 인도해 주어 갔던 사람이 갈림길에서 길을 헤매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 주석만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마음으로 터득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이익, 「논어질서서(論語疾書序)」 —

< 보 기 >

학생: “저는 아직 지식이 부족하여 최대한 많은 책을 읽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는데, 이럴 때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인터넷 검색으로 내용을 대강 파악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읽었던 책인데도 다시 보면 여전히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 ① 자료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 ② 많은 책을 읽기보다는 자신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읽을 책을 선택해야 해요.
- ③ 작가의 생각에만 얽매이지 말고 다른 사람의 관점도 확인해 보아야 해요.
- ④ 지식을 쌓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지식의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해요.
- ⑤ 지나치게 어려운 책보다는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찾아서 읽어야 해요.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화에 제시되는 시각적 정보는 이미지 트랙에, 청각적 정보는 사운드 트랙에 ㉠ 실려 있다. 이 중 사운드 트랙에 담긴 영화 속 소리를 통틀어 영화 음향이라고 한다. 음향은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면서 영화의 장면을 적절히 표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음향은 소리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화면 안에 음원이 있는 소리로서 주로 현장감을 높이는 소리를 ‘동시 음향’, 화면 밖에서 발생하여 보이지 않는 장면을 표현하는 소리를 ‘비동시 음향’이라고 한다. 한편 영화 속 현실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소리, 즉 배경 음악처럼 영화 밖에서 조작되어 들어온 소리를 ‘외재 음향’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영화 속 현실에서 발생한 소리는 모두 ‘내재 음향’이다. 이러한 음향들은 감독의 표현 의도에 맞게 단독으로, 혹은 적절히 ㉡ 합쳐져 활용된다.

음향은 종종 인물의 생각이나 심리를 극적으로 제시하는 데 활용된다. 화면을 가득 채운 얼굴과 함께 인물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인물의 속마음이 효과적으로 표현된다. 인물의 표정은 드러내지 않은 채 심장 소리만을 크게 들려줌으로써 인물의 불안정한 심정을 표현하는 예도 있다. 주인공의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가 관객에게 그대로 들릴 때, 관객은 자신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의도적으로 소리를 없앨 수도 있다. 이른바 ‘데드 트랙(Dead Track)’은 강렬한 인상의 음향만큼 효과적이다. 갑자기 의도적으로 소리를 제거한 영상이 나올 때, 관객은 주의를 집중하여 화면을 더 자세히 보게 된다. 이로써 인물이 처한 상황에 ㉢ 빠져들게 되어 인물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음향은 장면을 자연스럽게 잇는 접착제로도 쓰인다. 뒷장면이 제시될 때까지 앞장면의 소리를 지속시키거나 앞장면의 끝 부분부터 뒷장면의 음향을 미리 사용하면 장면 사이의 시간과 공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다. 장면과 장면의 소리가 ㉣ 겹쳐지게 할 수도 있다. 가령 아침에 알람 소리와 함께 시계로 손을 뻗는 인물의 모습을 제시한 후, 오후에 전화벨 소리와 함께 전화기로 손을 뻗는 동작을 보여주면 두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영화의 화면이 누군가의 얼굴이라면 음향은 그 사람의 목소리이다. 목소리를 듣지 않고 표정만으로는 그 내면을 온전히 알기 어렵듯, 음향이 빠진 화면만으로는 관객이 그 화면에 담긴 내적 의미를 ㉤ 알기 어렵다. 이처럼 음향은 영화의 장면 및 줄거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제나 감독의 의도를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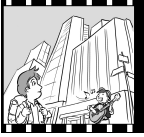
- ① 대상에 숨겨진 원리를 탐색하고 있다.
- ② 대상의 유형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이 변화되어 온 양상을 기술하고 있다.
- ④ 대상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⑤ 대상의 다양한 속성을 분석한 후 서로 비교하고 있다.

28. 문맥상 ㉠~㉤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수록(收錄)되어 ② ㉡: 결합(結合)되어
- ③ ㉢: 몰입(沒入)하게 ④ ㉣: 첨가(添加)되게
- ⑤ ㉤: 파악(把握)하기

※ <보기>를 읽고 29번과 3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A
B
C
D

A	S#.21 △△시 A 빌딩 앞(낮) ○ ㉠ 거리의 약사가 부르는 낮선 노래가 들려오는 외국 도시에 첫사랑을 찾아 온 남자. ○ 빌딩을 올라다보며 그녀를 꼭 찾겠다는 결의에 찬 표정을 보인다.
B	S#.22 △△시 도심(낮) ○ ㉡ 옆에 걸어가 있는 두 사람의 목소리와 거리의 자동차들 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소음들이 뒤섞여 시끄러운 거리에 있는 남자. ○ ‘그녀가 아직도 나를 기억할까?’라는 생각에 몰두해 있다가 요란한 자동차 경적음에 깜짝 놀란다.
C	S#.23 ○○시 도심(낮) ○ 자동차 경적음으로 시끄러운, 또 다른 도시의 거리에 있는 남자. ○ 거리를 헤매다 순간 멈춰 서서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점차 극도의 절망감을 드러낸다. 그리고 다시 힘없이 걸어간다.
D	S#.24 ○○시 도심(저녁) ○ 늦은 저녁, 축 처진 어깨로 한적한 횡단보도 앞에서 있는 남자. ○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첫사랑 그녀와 마주친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내재 음향이면서 비동시 음향이다.
- ② ㉠과 ㉡은 모두 외재 음향이면서 비동시 음향이다.
- ③ ㉠과 ㉡은 모두 내재 음향이면서 동시 음향이다.
- ④ ㉠은 동시 음향이고, ㉡은 비동시 음향이다.
- ⑤ ㉠은 외재 음향이고, ㉡은 내재 음향이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영화에 음향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 결의에 찬 모습과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넣어 인물의 정서를 표현한다.
- ② B에 인물의 내레이션을 삽입하여 그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한다.
- ③ C에서 소리를 일시적으로 없애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오는 극도의 절망감에 관객이 빠져들게 한다.
- ④ A와 D에 동일한 배경 음악을 사용하여 공간의 동일성이 드러나게 한다.
- ⑤ B와 C에 유사한 자동차 경적음을 겹치게 하여 두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 고향은 아니려노.

산평이 알을 품고
빠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뒤편에 홀로 오르니
흰 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 정지용, 「고향」 -

(나)

[A] 이제 다시 것처럼 깨끗한 기도 만날 수 없으리

장독대 위 정한수 담긴 흰 대접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B] 어둠은 도둑걸음으로 졸졸졸 고여오다가
흰빛에 닿으면 화들짝 놀라 내빼고는 하였다
어머니는 두 볼에 홍조 띠고

두 손 가지런히 모아
천지신명께 일구월십 가족의 소원 대신 빌었다

[C] 감응한 뒷산 나무들 자지러지게 잔가지를 흔들고
별꽃 서너 송이 고개 끄덕이며 더욱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런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붙은
비탈에 거꾸 엮어져 무릎 까진 밤새 울음이 있었다
풀잎들은 잠에서 깨어 부스럭대고

바지런한 개울물 들을 깨우러 가고 있었다
촛촛하게 짜여진 어둠의 천 오래 입은 낡은 옷 되어
톡톡 실밥이 터질 때 야행에 지친 파리한 달빛
맨발로 걸어들어와 벌컥벌컥 마셨다

[D] 광석들 가로 지르는 서울행 기차 목원 기적이
달아오른 몸 담가오기도 하였고 밤나무의,
그 중 실한 가지가 손 뻗어오기도 했으나
정한수는 줄지 않았다

장독대. 내 생의 뒤뜰에 놓여 있는,
생활이 타서 갈증으로 목이 마를 때

[E] 흰빛 내밀어 권하시는,
내 사는 동안 내내 위안이고 지혜이신 어른이시여,

- 이재무, 「장독대」 -

31. (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한다.
- ②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한다.
- ③ 같은 어구를 되풀이하여 의미를 강조한다.
- ④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한다.
- ⑤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낸다.

32. ㉠, ㉡와 관련하여 (가)의 '구름'을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를 이어주는 매개물이다.
- ② ㉠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환기한다.
- ③ ㉡의 부재를 화자가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 ④ ㉠과 ㉡의 부정적 현실을 수용하려는 화자의 태도이다.
- ⑤ ㉠과 ㉡의 괴리를 경험하게 된 화자의 내면세계를 나타낸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나)가 창작되었다고 가정할 때, [A] ~ [E]에 고려되었을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3점]

— < 보 기 > —

어머니는 늘 정한수 한 사발을 장독대에 올리시고 기도하셨다. 흰 대접을 정갈하게 닦으시고 자식들을 향한 오롯하고 순전한 마음을 정한수에 담으셨다. 그럴 때면 아무도 당신을 범접할 수 없었다. 철없던 시절의 나는 왜 그렇게 어머니 곁을 벗어나려 했을까. 그러나 순간순간 삶에 지쳐 돌아올 때면, 정한수 정갈한 그대로인 채 어머니는 날 넉넉히 품어 주셨다.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제 그 자리엔 당신 곁을 묵묵히 지켜냈을 장독대만 놓여 있다.

- ① [A]: 시적 상황과 관련하여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원망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 ② [B]: '흰 대접', '은은한 빛', '흰빛'을 통해 '정한수'의 속성을 드러내어 어머니 기도의 정결함을 부각한다.
- ③ [C]: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만물을 감응시킬 정도로 어머니의 정성이 지극함을 강조한다.
- ④ [D]: 화자의 방황과 이탈 심리를 사물을 통해 드러내고, 마르지 않은 '정한수'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과 포용력을 제시한다.
- ⑤ [E]: 부재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장독대'를 '어머니'와 동일시하며, 삶의 위안자로서의 '장독대'에 인격을 부여한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머니는 등 뒤의 작은 시위-그러나 오빠 나름대로는 필사적인-에 아랑곳하지 않고 분첩으로 탁탁 얼굴을 두들기고 가늘고 등글게 눈썹을 그렸다. 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오빠를 번갈아 보며,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호기심과 찬탄으로 거울 속에서 점차 나팔꽃처럼 보얗게 피어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시집을 때 해왔다는 등신대(等身大)의 거울은 이 방에서 유일하게 흠 없이 온전하고 훌륭한 물건이었다. 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남루해져 가는 우리들의 가운데서 거울은, 어머니가 매일 닦는 닦도 있지만, 나날이 새롭게 번쩍이며 한구석에 버티고 있었다. 그 이물감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실체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건지도 몰랐다.

거울 속에는 언제나 좁은 방 안이 가득 담겨 있었다.

소꿉놀이를 하다가도, 게으르게 눈을 껌뻑이며 잠에서 깨어나서도, 싸움질을 하다가도, 허겁지겁 밥을 먹다가도 문득 눈을 들면 방의 한구석에 버티어 선 거울이 자신은 볼 수 없는 등까지도 환히 비추는 바람에, 우리는 거울 속에서 낯설게 만나지는 자신에게 경원과 만구스러움을 느껴 옆으로 슬쩍 비켜서거나 남의 얼굴처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거울은 기울여 놓기에 따라 우리의 모습을 작게도 크게도 길게도 짧게도 자유자재로 바꾸어 비추었다. 언니와 나는 어머니가 없을 때면 끔찍하며 거울을 옮겨 놓고 그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를 부르거나 [연극 놀이]를 했다. 비가 와서 밖에 나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연극 놀이를 했는데 내용은 늘 똑같았다.

젠 멍청이니까 병자나 시켜. 작은오빠의 말에 따라 내가 힘없이 드러누우면 작은오빠는 의사, 언니는 천사가 되었다. 병자는 시중 가냘프게 신음을 하고, 주사를 맞고 약을 받아먹으며, 눈을 감고 있다가 죽어서 천사와 함께 하늘에 오르는 것이 연극의 끝이었다. 천사는 할머니의 치마를 둘러쓰고 옷자락을 펴리며 머리 주위를 돌다가 내가 머리를 모로 떨어뜨리고 탁 숨을 끊으면 안아 올렸다. 그러고는 화를 냈다.

너무 똥보라서 날 수가 없구나.

천사를 따라 펄럭펄럭 날갯짓을 하며 방 안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연극이 막을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대체로 정말 죽은 채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그러면 언니는 나를 마구 흔들며 짐짓 겁에 질린 소리로 호들갑스럽게 말했다.

노랑눈이 죽었니? 눈 떠봐. 정말 죽었니?

의사가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비집고 입김을 후후 불어넣으며 투덜대었다.

이 바보야, 일어나, 이제 끝났단 말야.

그러나 나는 천사와 함께 나는 것보다 죽은 채하고 누워 있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었다. 그렇게 가만히 있노라면 의사는 계속 주사를 놓고 천사는 다리가 아플 때까지 주저앉을 수 없어 내 작은 계교로 연극은 언제까지나 이어지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입술을 꽃모양으로 뚜렷이 그리고 하얗게 분이 오른 얼굴을 다시금 분첩으로 탁탁 두드렸다.

오빠는 더 큰 소리로 책을 읽었다.

㉠ 찾 아 유 두잉? 아임 리딩 어 북.

창 아래, 텃밭 가로 지나가던 사람 두엇이 고개를 빼어 안을 기웃거렸다.

어쩌면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꼭 미국 사람 지껄이듯 하는군.

오빠는 번성기에 접어든, 거세고 뻑뻑한, 그러면서도 여성적인 목소리로 한껏 혀를 굴렀다.

고등학교 입학 자격 시험 준비를 한다는 오빠는 저물 때까지 창가에 앉아서 영어책을 읽었다. 아예 책을 덮어 놓고 1과부터 외기도 했다. 우리의 좁은 방은 언제나 오빠의 책 읽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끝없이 반복되는 단조롭고 긴 소절의 노래였다. 오빠가 방에 없을 때조차 그 소리는 지루하게 되풀이해 울리고 있었다. ㉡ 찾 아 유 두잉? 핫츠 유어 프랜드 두잉?

중학교 2학년에서 학교를 중단한 오빠가 읽는 것은 피난집에 소중히 감춰 온 중2 교과서였다.

음에 약간 중학교가 생기자 어머니는 말했다. 온 식구가 한 멧잠을 자는 한이 있어도 학교를 보내마.

그런데도 오빠는 세 해째 같은 책을 읽고 있는 것이다. 보풀이 일어 녹녹하고 두껍게 부푼 책에 오빠는 딱딱한 마분지를 덧대어 뚜껑을 만들었다.

사람들 말대로 오빠는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었다.

갖고 놀아도 좋아.

어머니는 짝짝 훑어 바른 빈 크림통을 내게 내밀고 마지막으로 입술 곁에 날카롭게 미인점을 찍은 뒤 일어나, 거울에 옷맵시를 비춰 보았다.

다녀오마.

어머니는 저고리 소매에 손수건을 살짝 찢러 넣고 꽃가지라도 꺾어 든 양 한들한들 걸어 나갔다.

어머니가 나가자마자 오빠는 탁 책을 덮고 용트림을 하듯 아아 기지개를 켜며 웃웃을 벗어던졌다.

- 오정희, 「유년의 뜰」 -

34.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독백체 진술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 사건을 대비해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④ 꿈과 현실의 혼재를 통해 현실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객관적인 태도로 사건의 경과를 제시하고 있다.

3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진행되는 사건 속에 존재하는 소리라면, ㉡은 '나'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 ② ㉠과 ㉡이 유사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빠'가 세 해째 같은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 ③ ㉠은 '어머니'가 분첩으로 얼굴을 두드리는 소리와 대응되며 긴장감이 감도는 방안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은 '어머니'의 외출에 대한 '오빠'의 불만으로, '나'와 '어머니'에게 '작은 시위'로 인식되고 있다.
- ⑤ ㉡은 '되풀이해 울리'는 것으로, '나'에게는 '성공'에 대한 '오빠'의 자신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할 때 ‘연극 놀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놀이의 세계와 일상적인 현실의 세계는 상호 작용한다. 놀이의 세계는 특정한 내적 규칙으로 구축된 새로운 세계로서, 놀이를 통해 인간은 고단한 현실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놀이는 여전히 현실의 시·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 ① 남루하고 ‘좁은 방’은 인물들에게 중압감을 느끼게 하는 고단한 현실로 볼 수 있군.
- ② ‘병자’가 눈을 감고 있다가 ‘천사’와 함께 날갯짓을 하며 방안을 돌아다니는 것이 이 놀이의 내적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병자’가 ‘가냘프게 신음’을 하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의 세계가 놀이의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내’가 ‘날 수가 없’다는 것은 현실의 세계와는 다른 새로운 세계가 구축된 결과로 볼 수 있군.
- ⑤ ‘내’가 ‘작은 계교’를 부리는 것은 놀이를 연장함으로써 현실로의 복귀를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군.

무를 태우는 것도 기쁘다. 어두컴컴한 부엌에 웅크리고 앉아서 새빨강게 피어오르는 불꽃을 어린아이의 감동을 가지고 바라본다. 어둠을 배경으로 하고 새빨강게 타고르는 불은 그 무슨 신성하고 신령스런 물건 같다.

얼굴을 붉게 태우면서 긴장된 자세로 웅크리고 있는 내 팔은 흡사 그 귀중한 선물을 프로메테우스에게서 막 받았을 때의 그 태곳적 원시의 그것과 같을는지 모른다.

나는 새삼스럽게 마음속으로 불의 덕을 찬미하면서 신화 속 영웅에게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

좀 있으면 목욕실에는 자욱하게 김이 오른다. 안개 깊은 바다의 복판에 잠겼다는 듯이 동화의 감정으로 마음을 장식하면서 목욕물 속에 전신을 깊숙이 잠글 때 바로 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이 난다. 지상 천국은 별다른 곳이 아니라, 늘 들어가는 집 안의 목욕실이 바로 그것인 것이다. 사람은 물에서 나서 결국 물속에서 천국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

- 이효석, 「낙엽을 태우면서」 -

37. 윗글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관찰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 ② 비유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여러 가지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 ④ 의문문으로 표현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⑤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사색을 전개하고 있다.

[37~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벚나무 아래에 굵어모은 낙엽의 산더미를 모으고 불을 붙이면, 속에 갇혀서 푸스푸스 타기 시작해서 가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바람이나 없는 날이면 그 연기가 낮게 드리워서 어느덧 뜰 안에 자욱해진다. 낙엽 타는 냄새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 갓 볶아 낸 커피의 냄새가 난다. 잘 익은 개암 냄새가 난다. 갈퀴를 손에 들고는 어느 때까지든지 연기 속에 우뚝 서서, 타서 흩어지는 낙엽의 산더미를 바라보며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별안간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느끼게 된다. 연기는 몸에 배서 어느 결엔지 옷자락과 손등에서도 냄새가 나게 된다.

나는 그 냄새를 한없이 사랑하면서 즐거운 생활감에 잠겨서는 새삼스럽게 생활의 제목을 진귀한 것으로 머릿속에 떠올린다. 음영과 윤택과 색채가 빈곤해지고 초록이 전혀 그 자취를 감추어 버린, 꿈을 잃은 허전한 뜰 한 복판에 서서 꿈의 껍질인 낙엽을 태우면서 오로지 생활의 상념에 잠기는 것이다. 가난한 벌거숭이의 뜰은 벌써 꿈을 꾸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탓일까? 화려한 초록의 기억은 참으로 멀리 까마득하게 사라져 버렸다. 벌써 추억에 잠기고 감상에 젖어서는 안 된다.

가을이다! 가을은 생활의 시절이다. 나는 화단의 뒷자리를 깊게 파고, 다 타 버린 낙엽의 재를 - 죽어 버린 꿈의 시체를 - 땅 속 깊이 파묻고 엄연한 생활의 자세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야기 속의 소년같이 용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전에 없이 손수 목욕물을 길고, 혼자 불을 지피게 되는 것도 물론 이런 감각에서부터다. 호스로 목욕통에 물을 대는 것도 즐겁거니와 고생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조그만 아궁이로 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 사소한 경험의 때로는 우리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다.

- ① 계절과 관련된 ㉠을 통해 ‘화려한 초록의 기억’이 사라져 버린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있다.
- ② ‘갓 볶아 낸 커피의 냄새’, ‘잘 익은 개암의 냄새’ 등 후각적인 심상을 통해 ㉠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별안간 느끼게 된 것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 ④ ㉡은 ‘전에 없이 손수 목욕물을 길고, 혼자 불을 지피게 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 ⑤ ㉡은 ‘태곳적 원시’의 세계로 되돌아가고 싶은 원초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늙은 모친 병들어 누웠는데, 닭 한 마리, 약 한 첩도 봉양은 아니하고 잘 먹이지 아니하니, 냉돌방에 홀로 누워 서럽게 울며 하는 말이,

“너를 낳아 길러낼 제 애지중지 나의 마음 보옥같이 사랑하여 어루만져 하는 말이 ㉠ ‘은자동아 금자동아 무하자태 백옥동아 천지만물 일월동아 아국사랑 간간동아 하늘같이 어지러야 땅같이 너를거라. 금을 준들 너를 사라. 천상 인간 무가보(無價寶)는 너 하나뿐이로다.’ 이같이 사랑하여 너 하나를 길렀더니 천지간에 이런 공을 모르느냐. 옛날 왕상(王祥)이는 얼음 속에 잉어 낚아 부모 봉양 하였으니 그렇지 못하여도 불효는 면하여라.”

불측한 고집이놈이 어미 말에 대답하되,

“진시황 같은 이도 만리장성 쌓아 두고 아방궁 높이 지어 삼천 궁녀 호위를 받으며 천년이나 사셨더니, 일분총(一墳塚)을 못 면하여 죽어 있고 백전백승 초패왕도 오강에 죽어 있고, 안연 같은 현학사도 삼십에 조사(早死)커든 오래 살아 무엇하리. 옛날에 인간칠십(人間七十) 고래희(古來稀)라 하였으니, 팔십 당년 우리 모친 오래 살아 쓸데없네. 오래 살수록 욕됨이 많으니 우리 모친 다투어서 단명하리. 도적이 같은 몹쓸 놈도 천추에 유명커든 무슨 시비 말할손가.”

(중략)

“애고 애고 저놈 보소. 제가 나인 체하고 천연히 앉아 좋은 말로 그렇듯 말하네. 네가 웅가냐, 내가 웅가지.”

하고 서로 다툼 적에 김 별감 하는 말이,

“양 웅이 웅웅하니 이 웅 저 웅을 분별하지 못하겠네. 관가에 송사나 하여 보소.”

양 웅이 이 말을 듣고 서로 붙들고 관청에 들어가는데, 얼굴도 같고 의복도 같고 머리 가슴 팔뚝 다리까지 같았으니, 그 동안의 진위를 누가 알리오.

실용이 먼저 아뢰되,

“민(民)이 웅당촌에서 대대로 살아왔사온데 천만의 외 알지 못하는 허인이 민의 행색같이 하고 들어와 민의 집을 제집이라 하고, 민의 가족을 제 가족이라 하오니 세상에 이러한 흉한 일이 어디 또 있사오리까? 명명하신 성주는 이놈을 엄문하와 사리를 분명히 밝혀 주옵소서.”

허웅가 또 아뢰되,

“민이 아뢰 말씀을 저놈이 다하였사오니 민은 아뢰 말씀 없사오니 명백하신 성주는 통촉하시어 허실을 가려 주옵소서. 이제 죽사와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사또 분부하되,

“양 웅은 서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

하고, 육방 하인이며 내빈 행객 모두 살피되 전혀 알 수 없는지라.

형방이 아뢰되,

“두 백성의 호적을 상고하여지이다.”

허허, 그 말을 옳다 하고 호적을 담당하는 관리를 불러 양 웅의 호적을 들을 제 실용이 나았으며 아뢰되,

“민의 애비 이름은 웅송이웁고 조부는 만송이로소이다.”

사또 왈,

“그놈 호적은 웅송만송하다. 알 수 없으니 저 백성 아뢰라.”

(중략)

사또 듣기를 다하매 왈,

“그대가 참 웅 좌수라.”

하고 당상에 올려 앉히고 기생을 불러

“이 양반께 술 권하여라.”

일색 기생 술을 들고 권주가 화답하되,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 술 한 잔 잡수시오. 이 술은 술이 아니라 한무제(漢武帝) 승로반(承露盤)에 이슬 받은 것이오니, 쓰다 다나 잡수시오.”

웅 좌수 흥을 내어 술잔을 받아 들고 하는 말이,

“하마터면 아까운 세간을 저 놈에게 빼앗기고 이런 일등 미색의 이렇듯 맛난 술을 못 먹을 뻔하였다. 그러나 성주 덕택에 흑백을 가려 주옵시니 은혜 백골난망이로소이다. 한번 민의 집에 나오시오. 막걸리 한잔 대접하오리다.”

“그는 염려 말게. 처치하여 줘세.”

실용을 불러 분부하되,

“네가 흥측한 놈으로 음흉한 뜻을 두고 남의 세간 탈취하려 하니 네 죄상은 마땅히 법에 따라 귀양을 보낼 것이로되 가 벼이 처벌하니 바빠 어서 물리치라.”

대곤 삼십 도를 매우 쳐서 엄문죄목하되,

“인제도 웅가라 하겠느냐?”

실용이 생각하되 만일 웅가라 하다가는 곤장 밑에 죽을 듯 하니,

“㉡ 예, 웅가 아니요.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전이 호령하여,

“관원을 시켜 저놈을 마을 밖으로 내쫓게 하리라.”

하니 별때 같은 군노 사령 일시에 달려들어 웅가 상투를 잡아 휘휘 돌려 내쫓으니 실용이 하릴없이 거리에서 빌어먹고 가슴을 탕탕 두드리며 대성통곡 우는 말이,

“답답하다 내 일이야. 꿈이나 생시냐. 어찌하여야 웅단 말이나. 뜻밖에 일어난 횡행이로다.”

무지한 고집이놈 인제는 개과하여 애통해 하는 말이,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거니와 당상 학발(堂上鶴髮) 우리 모친 다시 봉양하여지고. 어여쁜 우리 아내 월하(月下)의 인연 맺어 일월(日月)로 본증(本證) 삼고 천지로 맹세하여 백년 종사 하겠더니 독수공방 적막한데 임 없이 홀로 누워 전전 반측 잠 못 들어 수심으로 지내는가. 슬하의 어린 새끼 금옥같이 사랑하여 어를 제 ㉢ ‘설마등등 내 사랑 후두둑 후두둑 얼마 아빠 눈에 암암’ 나 죽겠네. 아매도 꿈인가 생신가. 꿈이거든 깨이거라.”

허웅가 거동 보소. 승소하고 돌아올 제 의기양양하는 거동 그야말로 제법이다. 얼씨구나 좋을시고. 손춤 치며 노랫가락 좋을시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조롱하여 하는 말이,

“허허 흉악한 놈, 하마터면 우리 고운 마누라 빼앗길 뻔하였다.”

- 작자미상, 「웅고집전」 -

3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용은 조상대대로 살던 곳에서 살고 있다.
- ② 허웅은 참웅으로 인정받은 후 실용을 조롱하고 있다.
- ③ 사또는 외모를 근거로 허웅을 참웅으로 인정하고 있다.
- ④ 실용은 송사에서 패한 후에 거리를 떠돌며 빌어먹고 있다.
- ⑤ 허웅은 자신을 참웅으로 인정해 준 성주의 공을 치켜세우고 있다.

4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은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특정 인물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에 비해 ㉡은 특정 인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③ ㉡과 달리 ㉠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과 ㉡ 모두 특정한 대상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고 있다.
- ⑤ ㉠과 ㉡ 모두 자신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에서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삶의 안정을 꾀한다. 그런데 가족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여러 종류의 경고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개인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는 결정적 사건을 맞이하게 된다. 가족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삶이 황폐해진 개인은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가족 공동체로의 복귀를 소망하게 된다.

- ① 실옹이 노모에게 불효를 저지르는 것은 지켜야 할 가족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실옹이 모친의 말에 진시황 등을 들며 대답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실옹이 송사에 저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는 것은 가족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결정적 사건으로 볼 수 있군.
- ④ 실옹이 마을에서 쫓겨난 후에 자신을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반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실옹이 아내와 자식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로의 복귀를 소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42. ㉡에 나타난 실옹의 심리를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중지란(自中之亂)
- ② 과유불급(過猶不及)
- ③ 절치부심(切齒腐心)
- ④ 팔목상대(刮目相對)
- ⑤ 자포자기(自暴自棄)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운 섬돌 좋은 흙에 촘촘히 심어 내니
봄 삼월 지난 뒤에 **향기 없다** 웃지 마소.
취한 나비 미친 벌이 따라올까 두려워하네.
정숙한 기상을 나뭇가에 뉘 벗할까.
옥난간 기나긴 날에 보아도 다 못 보아,
창문을 반쯤 열고 아이를 불러 시켜,
다 핀 꽃을 캐어다가 상자 안에 가득 담고,
바느질을 끝낸 후에 안채에 밤이 들어
환한 촛불 아래 가깝게 다가앉아

㉠ 흰 백반을 갈아 바수어 옥 같은 손 가운데 곱게 곱게 개어 내니

파사국(波斯國)* 임금의 산호 궁전을 해쳐 놓은 듯,
궁궐 붉은 도마뱀을 절구에 **뺨아** 놓은 듯,
섬섬옥수 열 손가락을 수실로 감아 내니,

㉡ 종이 위로 붉은 꽃물 미미하게 스미는 듯
미인의 얼은 뺨에 붉은 안개 끼이는 듯

㉢ 단단히 묶은 모양 비단에 옥글씨로 쓴 편지를 왕모(王母)*
에게 부치는 듯.

봄잠을 늦게 깨어 차례로 풀어 놓고,
거울을 대하여 눈썹을 그리려니

㉣ 난데없이 붉은 꽃이 가지에 붙어 있는 듯
손으로 잡으려 하니 어지럽게 흩어지고
입으로 불러 하니 안개가 섞여 가리는구나.

친구를 서로 불러 즐겁게 자랑하고,

㉤ 쪽 앞에 나아가서 두 빛을 비교하니

쪽 앞에서 나온 푸른 물이 쪽빛보다 푸르단 말, 이 아니 옴
겠는가?

은근히 풀을 매고 돌아와 누웠더니

녹의홍상 한 여인이 표현히 앞에 와서

웃는 듯 찡그리는 듯 사례(謝禮)하는 듯 하직하는 듯.

어렴풋이 잠을 깨어 곰곰이 생각하니,

아마도 꽃귀신이 내게 와 하직한 듯.

창문을 급히 열고 꽃수풀을 살펴보니

땅 위에 붉은 꽃이 가득히 수놓았다.

암암이 슬퍼하고 날날이 주워담아 꽃에게 말 붙이기를

그대는 한스러워 마소 해마다 꽃빛은 의구하니

하물며 **그대 자취 내 손에 머물렀지**

동산의 도리화는 잠깐의 봄을 자랑 마소.

이십 번 꽃바람에 적막히 떨어진들 뉘라서 슬퍼할까.

규중에 남은 인연 그대 한몸 뿐이로세.

봉선화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는가, 이리하여 지었구나.

- 작자미상, 「봉선화가」 -

* 파사국(波斯國) : 페르시아.

* 왕모(王母) : 신선이 산다는 곤륜산의 선녀인 서왕모.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삶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② 과거와의 대비를 통해 상황에 대한 회의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감정을 절제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객관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며 대상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과정을 제시하여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이는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 비유적 표현을 반복하여 붉은 빛이 스며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미화된 표현을 통해 봉선화 물들이기에 기울인 화자의 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역동적인 묘사를 통해 봉선화의 속성을 파악하기 어려움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손톱에 물든 봉선화 물의 붉은 빛을 강조하고 있다.

45.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시적 화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봉선화의 '향기 없'는 속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
- ② 시적 화자는 '녹의홍상 한 여인'이 등장하는 꿈을 통해 봉선화의 낙화를 예감하고 있군.
- ③ 시적 화자는 '그대 자취 내 손에 머물렀'음을 근거로 '그대는 한스러워 마소'라고 하며 봉선화를 위로하고 있군.
- ④ 시적 화자는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떨어지는 '동산의 도리화'에서 무상감을 느끼고 이를 슬퍼하고 있군.
- ⑤ 시적 화자는 '규중에 남은 인연 그대 한몸 뿐이로세'라고 말함으로써 봉선화에 대한 각별한 정을 드러내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